

일본에 전수된 한국의 문화

—비교언어학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이 지 수*

(e-mail : likejisoo@hanmail.net)

< 목 차 >

- | | |
|-------------------------------|------------------------------|
| 1. 서론 | |
| 2. 본론 | 2.3. 수에가마(須惠窩;すゑかま)의 이표기와 어원 |
| 2.1. 신라(新羅)의 이표기와 그 지명어원 | 2.4 한국문화 관련의 일본지명 |
| 2.2. 수수보리저(須須保理菹;김치)의 이표기와 어원 | 3.결론 |

Key word; 比較言語学(Comparative Linguistics), 飛鳥文化(Asuka Culture), 漢字借字表記(Adopted Chinese writing system), 郷札(Hyangchal), 万葉仮名(Manyogana)

1.서론

일본최고의 사서인 『니혼쇼키(日本書紀)』에는 한반도 삼국관련 기사(記事)가 다수 존재하는데 특히 백제(百濟)계 기사는 당시 일본이 한반도 삼국과 밀접한 문화적 교류관계에 있었으며 문화적으로 한반도의 영향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7세기전반 당시의 일본문화를 「아스카(飛鳥)1)문화」라고 하는데 불교문화, 사찰건축, 기와제작기술, 회화제작기술, 음악과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백제계 도래인의 역할은 상당했었다.2) 또한 양국은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일본어학전공

1) 「아스카(飛鳥)」라는 말의 어원은 「安宿」에서 온 말로 「한반도 남쪽 끝 해안에서 출발하여 오랜 항해와 모험 끝에 정착할 만한 땅을 찾은 안도감」을 뜻한다. (정혜선(2011).일본사다이제스트100, pp.48~52.)

2) 현대일본어에는 「구다라나이(くだらない);시시하다 변변치않다」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는 「구다라(クダラ/百濟)」가 아니다. 즉 「백제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된다. 또한 「下(くだら)ない」라

들여와 그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한자차용표기(漢字借字表記)」를 사용하게 된다. 그 차자표기(借字表記)의 가장 발달된 형태가 한국은 「향가(鄉歌)」를 표기한 「향찰(鄉札)」 일본은 『만요슈(万葉集)』의 표기방식인 「만요가나(万葉仮名)」라고 할 수 있겠다. 필자는 다년간 앞서 언급한 한국과 일본의 한자차용표기를 비교언어학적 입장에서 연구해 왔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 중에서 문화적인 것과 직접 연관이 있는 「신라(新羅;シラキ)의 국명」과 「김치;수수보리(須須保理/ススボリ)」에 관한 두 논문을 간략하게 정돈하여 소개하고 「수에가마(須惠窩;スエカマ)」와 「세부리(背振;セブリ)/이후쿠(伊福;イフク)/고오리모토(郡元;コオリモト)町/무라사키바루(紫原;ムラサキバル)町/가라구니타케(韓国岳;カラクニタケ)」 등의 지명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성과를 정돈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적 연관성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한일 양국은 문자가 없던 시절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들여와 사용했는데 그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한자차자표기(漢字借字表記)를 사용하게 된다. 차자표기(借字表記)라는 것은 후대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라진 표기이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융성한 표기양식으로 전해진다. 그 차자표기의 가장 발달된 형태가 한국은 「향찰(鄉札)」, 일본은 「만요가나(万葉仮名)」라고 할 수 있겠다. 「만요가나」은 『만요슈(万葉集)』를 표기한 차자양식으로 『만요슈』에서 그 명칭도 유래한 것이지만 상대의 다른 문헌에서도 널리 사용된 표기양식이다. 특히 『만요슈』는 권20의 4500여수에 달하는 노래를 담고 있는 방대한 자료이다. 「향찰」역시 「향가(鄉歌)」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향가를 표기한 표기양식이다. 향가는 당시 상당히 융성했던 시가로 신라 진성여왕 때의 『삼대목(三代目)』이란 가집을 남겼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두 표기양식은 그 운용체계(運用体系)에 있어서 극히 유사점을 보이며 문자가 없었던 당시의 양국상황으로서는 가히 획기적이고 괄목할 만한 것이었을 것이다. 「온가나(音仮名)」란 「만요가나」 표기의 한 형식으로 향가의 「음차자(音借字)」와

는 의미도 존재한다.

극히 유사한 형식이다. 한자차자표기체계(문자의 운용방식)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정용(正用)」과 「가용(假用)」으로 나누어 진다. 「정용」이란 한자를 차용할 때에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원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훈(훈)」이나 「음(음)」을 빌리는 형태이고 「가용(假用)」이란 그 한자의 원의를 무시하고 「훈」이나 「음」을 빌려 쓰는 것을 의미한다. 정용의 형식으로는 향찰에서는 「훈독자(訓讀字)/음독자(音讀字)」가 있고 만요가나에는 「세이군지(正訓字)/세이온지(正音字)」가 있다. 여기에서 향찰의 훈독자는 만요가나의 세이군지에, 향찰의 음독자는 만요가나의 세이온지에 극히 유사성을 보이며 만요가나의 표기체계에는 「기군지(義訓字)」라는 형식이 별도로 존재한다. 가용의 형식으로는 향찰에는 「훈차자(訓借字)/음차자(音借字)」가 있고 만요가나에는 「군가나(訓假名)/온가나(音假名)」가 있다. 여기에서 향가의 훈차자는 만요가나의 군가나에 향가의 음차자는 만요가나의 온가나에 극히 유사성을 보이며 만요가나의 표기체계에는 「다와무레가끼(戲書;たわむれがき)」라는 독특한 형식이 별도로 존재한다. 결국 표기체계에 있어서 만요가나의 경우(일본)은 「세이군지(正訓字)/세이온지(正音字)/기군지(義訓字)/군가나(訓假名)/온가나(音假名)/다와무레가끼(戲書)」의 6체계가 향찰(한국)은 「훈독자(訓讀字)/음독자(音讀字)/훈차자(訓借字)/음차자(音借字)」의 4체계가 존재한다. 이들 체계 중에서 특히 「세이군지(正訓字)와 훈독자(訓讀字)」 「세이온지(正音字)와 음독자(音讀字)」 「군가나(訓假名)과 훈차자(訓借字)」 「온가나(音假名)과 음차자(音借字)」의 네 체계는 극히 유사한 표기양식을 보이며 이러한 표기양식의 유사성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언어연구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 신라(新羅)의 이표기와 그 지명어원³⁾

삼국시대의 국호인 「신라」는 상대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어온 이웃 일본의 인명 지명속에 차자표기(借字表記)의 다양한 형태로 수입 정착되어 남아 있다. 특히 「しんら[shinra]」와함께 중국·한국 측 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しらぎ(しらぎ)[shiragi(shirki)]」라는 이표기(異表記)가 상대문헌에 나타나는데, 특히 마지막 음절의 [gi/ki]가 주목된다. 「신라(新羅)」는 본래 우리나라의 국명표기로 다른 국명과는 달리 다양한 표기형태를 보인다. 한국의 자료인 『삼

3) 이지수(2005) 「新羅(シラギ)의 異表記와 그 地名語源에 대하여」 『일본문화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pp. 205-221.

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신라」는 「新羅·斯羅·斯廬·尸羅」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 ① 国号曰徐耶伐或云斯羅或云斯廬或云新羅脱解王九年始林有鷄怪更名鷄林因以為国号(史記地理1)
- ② 国号徐羅伐又徐伐<今俗訓京字云徐伐 以此故也> 或云斯羅 又斯廬 (遺事1 新羅始祖)
- ③ 檀君抛朝鮮之域為王 故 尸羅 高礼 南北沃沮 東北扶余 穢与貊 皆檀君之寿也 (帝王韻紀 下)

중국측 사료인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 등에서는

- ① 斯廬国 (魏志東夷傳 辰韓12 國中1)
- ② 辰韓始有六国稍分為十二国新羅則其一也云云魏時曰新廬宋時曰新羅或曰斯羅(梁書諸夷傳新羅)
- ③ 新羅云云 南北与句麗百濟接 魏時曰 新廬 宋詩曰新羅 或曰斯羅 (南史 新羅)

등과 같이 「斯廬·新廬·新羅·斯羅」로 표기되었다. 일본측의 『니혼쇼키(日本書紀)』 『고지키(古事記)』 『신센쇼지로쿠(新撰姓氏錄)』 『후토키(風土記)』 등에서는

- ① 一書云 是時素盞鳴尊師其子五十猛神 降到於新羅国 居会尸武梨之处 (日本書紀 神代紀)
- ② 故其御船之 波瀾 押勝 新羅之國 (古事記 仲哀段)
- ③ 新羅貴彦波瀾武鷲草葺不合尊男稻命之後也 是於新羅 國即為國主 (新撰姓氏錄)
- ④ 是謂栲衾新羅國焉 (日本書紀 仲愛紀)
- ⑤ 白衾新羅國 (播摩國風土記)

등으로 「新羅·新良·新良貴」 등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들은 모두[shiraki(shiragi)]로 읽는다. 특히 예문 ④⑤는 경주(慶州)의 신라가 아니고 신라인들이 대마도(對馬島)나 규슈(九州)에 세운 나라의 이름이다. ④⑤의 예에서는 경주의 신라와의 구분을 위해서 「栲衾·白衾」를 덧붙였다. 즉 일본지명에서는 2개음절어[shin+ra]로 읽음 그대로 읽은 경우와 3개음절어[shi+ra+gi]로 읽은 경우 두 가지로 읽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를 [シラギ]로 읽을 경우, [shi+ra]까지는 당시 국명임을 알 수 있으나, [shi+ra+gi]에서의 제3음절인 [gi]가 시사하는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본고에서는 「신

라」를 [シラギ]로 읽을 경우의 [ギ]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만요슈(万葉歌)』에서 [shi+ra+gi]란 국호를 가인(歌人)에 따라 그 표기를 달리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령 <권3 460>과 <권15 3587>에서는 [shi+ra+gi]를 「新羅(シラギ)」로 표기하고 있으나 <권15의 3696>에서는 [shi+ra+gi]의 제3음절어인 [gi]를 의식하여 그것을 문자로 반영시킨 「新羅奇(シラギ)」로 표기한 용례가 발견된다.

- ①多久夫須麻 新羅辺伊麻須 伎美我目乎 家布可安須可登 伊波比弓 麻多牟⁴⁾
 (タクブスマシラキヘイマスキミガメヲケフカアスカトイヒテマタム) <万葉集卷十五 3587>
- ②新羅奇尙可 伊尙爾可加反流 由吉能之麻 由加牟多登伎毛 於毛比可櫛都母
 (シラキヘカイヘニカカヘルユキノシマユカムタドキモ オモヒカネツモ) <万葉集 卷十五 3696>

이와 같은 제3음절어 [gi]를 의도적으로 반영한 표기 예는 다른 상대일본문헌 자료에서도 보인다. 가령 『이즈모후토키(出雲国風土記)』에서는 [shi+ra+gi]를 「志羅紀(シラキ)」로, 『신센쇼지로쿠(新撰姓氏錄)』에서는 「新良貴(シラキ) 新良木(シラキ)」 등의 표기예를 보인다. 이상 예시로 미루어 볼 때 「新」+ 「羅」의 두 문자만으로는 [shi+ra+gi]로 읽을 수 없고 반드시 제3음절어인 [gi]를 반영한 어떤 文字가 「신라」의 다음음절에 첨가되어야만 [shi+ra+gi]로 읽을 수 있다. 즉 [shi+ra+gi]에서의 제3음절어 [gi]의 위치에 「奇(キ) 紀(キ) 貴(キ) 木(キ)」 등의 1자가 더 첨가되어 [gi]로 독립시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시대별국어사전·상대편(時代別国語辞典·上代編)』에 실려있는 만요가나(万葉仮名)표 중에서 「ki(甲)(乙)」 「gi(甲)(乙)」만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제1기(推古朝)	/	제2기(万葉集 古事記)	/	제3기(日本書紀)
키 ki(甲)	支岐吉 / 伎岐岐吉 枳棄企(寸來)	/	岐吉枳棄企 耆祇祁	
기 gi(甲)	伎祈芸岐	/	伎儀蟻芸	
키 ki(乙)	歸貴 / 奇寄綺忌紀歸幾(木城樹)	/	奇己紀氣幾基規既	
기 gi(乙)	疑宜義	/	疑擬	

4) 正宗敦夫(1994) 『万葉集総索引(漢字編)』平凡社, pp.139-140, p.236, p.244
 正宗敦夫(1994) 『万葉集総索引(単語編)』平凡社, p.999

이 표를 참고로 하면 「奇·紀」의 경우는 키[ki] 을류(乙類) 제2기에 「歸」의 경우는 키[ki]乙類류 제1기에 「木」의 경우는 키[ki] 을류(乙類) 제2기의 군가나(訓假名) 표기임을 알 수 있다. 즉 키[ki] 을류(乙類)에 집중해 분포하여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은 한국과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고 특히 한국과의 연관성이 있는 스이코초이분(推古朝遺文)의 제1기 가나(假名)인 「歸·貴」의 경우는 제2기와 제3기에는 용례를 보이지 않게 되거나 빈도수가 낮은 가나(假名)로 나타난다. 또한 제2기 군가나(訓假名)에 「木·樹·城」 중에서 「城」이 있음이 주목되는데 실제로 「城」은 일본상대문헌에서 온가나(音假名) 「奇·紀·貴·歸」 등에 대응되고 있다.⁵⁾

- ① 柯羅俱爾能 基能 宇陪爾 카ラクニキノウヘニ (韓國の城の上に) <紀謠 100.101>
 ② 志貴嶋倭国者 シキシマノヤマ (磁城島の大和の国は) <万葉集 卷十三3254>
 ③ 宇陀能多加紀爾 ウタノタカキニ (宇陀の高城に) <記謠 9>
 ④ 斯歸斯麻宮 シキシマノミヤ (磁城島の宮) <丈六銘 露盤銘 繡帳銘>

위의 記紀歌謠와 推古朝遺文속에 나타난 온가나(音假名) 「紀(キ)乙·貴(キ)乙·木(キ)乙·歸(キ)乙」 등은 모두 「키·乙類」에 속하는 온가나(音假名)로서 「城」과 일치되는 「키(乙類)」에 속한다. 이러한 「城」과 [giギ/ki키]의 대응관계는 현재 일본지명에서도 흔하게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城」을 [ギ]로 읽은 地名齣;

岩城村 (いわぎむら) <愛媛県 越智郡>	宮城郡 (みやぎぐん) <宮城県>
姫城 (ひめぎ) <鹿児島県国分市>	天城町 (あまぎちょう) <鹿児島県大島郡>
小城町 (おぎまち) <佐賀県 小城郡>	赤城村 (あかぎむら) <群馬県 勢多郡>
宮城野区 (みやぎのく) <宮城県仙台市>	金城町 (かなぎちょう) <鳥郡県邦賀郡>
岩城町 (いわぎまち) <秋田県 由利郡>	宮城村 (みやぎむら) <群馬県勢多郡>

「城」을 [키]로 읽은 地名齣;

上益城郡 (かみましきぐん) <熊本県>	築城町 (ついきまち) <福岡県筑上郡>
豊城 (とよぎ) <福岡県 浮羽郡 田主丸町>	坂城町 (さかきまち) <長野県>

5) 이지수(2015) 「<伊予道後温湯碑文>에 관한 一考」 『일본언어문화』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209-228.

高城町 (たかきちょう) <鹿児島県川内市>

또한 현재일본인의 인명에서도 「城」을 ki로 읽은 예가 존재한다.

山城章 (야마자키) <鳥取大名譽教授 経営学>

山城祥二 (야마자키) <放送大客員教授 分子生物学>

山城新伍 (야마자키) <俳優>

山城隆一 (야마자키) <大阪工芸 デザイナー>

山城巴 (야마자키) <現代小説家>

「키」가 한국계의 차용어일 2차적인 근거로는 『신센쇼지로쿠(新撰姓氏録)』⁶⁾에 나타난 「姓氏(かばね)」와 『風土記』의 기사를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상대인명으로부터 현대인명에 이르기까지 「山城(야마자키/야마자키)」이란 성씨(姓氏)가 많은데 이것은 그 선조들이 산성(山城) 축조에 기술전수에 공헌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찬성씨록』에서 이들의 「じ(氏)」 밑에 「いみき(忌寸 또는 伊美吉)」나 「むらじ(連)」란 「かばね(姓)」가 붙어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도래계일 가능성이 크다. 「播磨風土記 神前郡」의 기사에 의하면 백제인들이 일본에 건너와 백제식 산성을 축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만약, 산성(山城)을 축성하는 기술이 백제로부터 일본열도에 전수된 것이라면 그 기술전수를 위한 기술자가 건너갔을 것이고 그 「山城」의 실물(実物)에 대한 명칭인 [ki]란 백제어까지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어에서는 「城」자를 [ジョウ]나 [しろ]로 읽을 수는 있으나 「キ/ギ(gi/ki)」또는 「さし(sasi)」란 훈(訓)은 일본의 고유어가 아닌 외국어로부터의 차용어로 판단된다. 옛날 신라국(新羅国)의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신라도성(新羅都城)」또는 「신라왕성(新羅王城)」을 나타낸 「신라성(新羅城[shiragi])」이 당시 신라국의 전지역을 대표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열도에서 「신라」를 [シラギ]로 호칭한 것으로 [shiragi]는 단순한 「신라」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신라성(新羅城・shiraki)」으로부터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즉 「신라新羅(シラギ)」의 어원은 「신라성(新羅城)[shiragi]또는[shiraki)」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6) 『신센쇼지로쿠(新撰姓氏録)』은 1182씨족을 황별(皇別) 신별(神別) 번별(蕃別)로 삼분류 하였는데, 이 중에서 번별(蕃別)의 가바네(姓)에 해당하는 무라지(連) 이미끼(忌村) 수구리(村主) 오비또(首) 등이 도래계에게 주어졌다.

2.2 수수보리저(須須保理菹;김치)의 이표기와 어원

일본의 고문서인 정창원고문서(正倉院古文書)⁸⁾에는 「수수보리저(須須保理菹;스스ホリ)」 즉 「김치무리」가 일본에 전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三国史記』 신문왕편에는 김치무리를 「醃;혜(식초)」라 기록하고 있고 『三国志 魏志東夷伝』 『濟民料術』 등에도 김치무리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들은 모두 발효 식품인 김치에 관한 내용으로 일본과 한반도의 삼국이 왕래하는 가운데 「김치무리」가 전달되었음을 암시하는 기록이다. 일본의 上代語辞典(上代編)에는 「스스ホリ」가 「漬物⁹⁾用の野菜。あおなの類か。あるいは野菜を塩漬にしたものか。」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다른 일본의 상대문헌에는 「스스ホリ」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①又下塩式升 青菜須須保理四围漬料围別五合(正倉院古文書15 天平宝字六年)
- ②茄漬이八果別二丸、須保利二斗四升別一合(正倉院古文書13 天平勝宝六年)
- ③青菜須須保理四佻浸料(正倉院古文書13 天平勝宝六年)
- ④菁根須須保理一石料塩六升米五升(延喜式内膳司)
- ⑤菹須須保理(新撰字鏡)

예문 ①②③는 각각 「正倉院古文書13/15년」과 예문④⑤ 『延喜式』 『新撰字鏡』의 기록이다. 이들 音仮名표기를 살펴보면 예문①③은 「須須保理」 ④⑤은 「須須保理」 ②는 「須保利」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古事記』 応神条에는 「須須許理(ススホリ)」라는 「술 만드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가 전한다.

又、秦造之祖・漢直之祖、及知_レ釀_レ酒人、名仁番、亦名須須許理等、參渡來也。故、是須須許理、釀=大御酒-以献。於是、天皇、字=羅宣是所_レ献之大御酒-而、[字羅宣三字以_レ音。]¹⁰⁾ 御歌曰、須須許理賀 迦美斯美岐迹 和礼惠比迹祁理 許登那具志 惠具志爾 和礼惠比迹祁理¹¹⁾ (すすこりが かみしみに われゑひにけり。ことなぐし ゑぐしに われゑひにけり)。

7) 이지수(2015) 「須須保理(스스ホリ)菹에 관한 一考」 『일본연구』 6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399-422.

8) 『正倉院文書研究1』(1993)正倉院文書研究会編, 吉川弘文館, pp.1-35; 『正倉院文書研究2』(1994)正倉院文書研究会編, 吉川弘文館 pp.1-33; 和田軍一(1996) 『正倉院案内』, 吉川弘文館, pp.208-213

9) 漬(담글 지);漬物(つけもの)

10) 실제로는 小書로 두줄로 표기되었으나 편의상[]으로 처리함.

11) 記歌謡49番;원문내에서 가요는 원문보다 작은 활자로 표기됨

이 기사에 의하면 「술을 제조하는 사람」을 「須須許理(ススコリ)」라고 했고 그들은 도래인이었으며 술을 만들어서 천황에게 바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須須許理(ススコリ)」에 관해서 상대문헌을 살펴보면

- ① 「辛島恵我エガノ須須己理」 『住吉神代記』
- ② 「応神天皇之代、百濟人須曾己利[人名酒公]參來」 『本朝月令』¹²⁾
- ③ 「私記曰師説、高麗人來ヲ住=餌香市-、釀=旨酒-時人競以=高価-買飲」 『釋紀』¹³⁾

등으로 예문①의 「須須己理」와 예문②의 「須曾己利」의 「ススコリ」의 音仮名표기가 나타나고 예문③의 「釀=旨酒-」과 예문②의 [人名酒公]은 이들이 [술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예문① 「辛島」 예문② 「百濟人」 예문③ 「高麗人來」 등은 그들이 한반도 삼국 「辛/高麗/百濟」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선 『古事記』 記事와 『本朝月令』 등에서 「스코리」의 「コ」의 音仮名표기에 乙類의 仮名 「己/許」가 사용된 점¹⁴⁾은 한반도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게 하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⁵⁾. 상대문헌에서 「コル(動四)」의 용례는

- ① 石凝姥 [伊之居梨度咩(イシコリドメ)] <神代紀上>
- ② ---味凝 文爾乏寸 高照 日之御子 <万 162>
(---うまこり あやにともしき たかてらす ひのみこ)
- ③ 前件神代之事、説似=磐凝永之意-、取=信宴難<古語拾遺>
- ④ 戈鋒垂落之潮、結而為嶋<神代上>
- ⑤ 凍凝コル<名義抄>

등으로 「凝固する。凍結する。」의 의미이다. 예문①의 「石凝姥」는 [伊之居梨度咩(イシコリドメ)]라는 音仮名표기의 용례가 있고 예문②③에서는 「凝」 ④에서는 「結」 ⑤의 『名義抄』에서는 「凍凝」 등의 正訓字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곡주를 만들려면 누룩과 쌀을 상온에서 발효시킨다고 한다. 발효의 과정에서 재

12) 六月朔日夕造酒正献酒事の条

13) 顕宗即位前紀의 「旨酒餌香エガノ市」의 注.

14) 「コ(甲類)」는 「古/故/高/庫/姑/孤/枯/固/顧」 / 「コ(乙類)」는 「許/巨/居/去/忌/挙/抛」이다.

15) 이지수(2014) 「<仏足石歌>에 관한 一考」 『日語日文学研究』 제89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229-252

이지수(2014) 「正倉院万葉仮名文書(甲)에 관한 一考」 『일본어학연구』 제41집, 한국일본어학회, pp.131-148

료가 서로 섞이고 엉기고 응고되어서 발효가 진행되어 술이 만들어지므로 그 과정과 「コル;凝固する。凍結する。」는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소 후대의 『姓氏錄』의 右京皇別下の 酒部の條에는 仁德朝에 朝鮮에서渡來한 「兄曾曾保利、弟曾曾保利」라는 두사람의 조주기술자(造酒技術者)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는 앞선 문헌들과는 달리 「酒部の條」에 조주기술자로 소개되는 이들이 「스스кори」가 아닌 「曾曾保利(스스호리)」로 전해진다는 점이다. 音假名표기의 측면에서도 「曾曾保利(스스호리)」는 앞선 「須須保理」「須須保利」「須保利」와는 차이가 있지만 「曾曾保利」는 「스스호리」로 읽어야 하므로 「스스호리」와 「스스кори」는 동일한 직업군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김치와 술 모두 발효식품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들이 한반도에서 도래한 사람들이라는 여러 가지 문헌자료의 기록들도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須須保理; 스스호리」라는 한자차용표기에 대하여 각각의 漢字字音 「須」「須」「保」「理」에 관한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고 「스스호리」를 「스스」「호리」「스스호리」로 나누어서 그 万葉假名로서의 용자와 용법을 고찰한 바 있다. 그 결과를 간략 정돈하면 다음과 같다. 「須須(스스)」는 ①[「스;醱(正訓字)+스;為(正訓字)」⇒「스(須)+스(須)」] ②[「스;醱(正訓字)+스;須(音假名)」(後行添記)또는 「스;須(音假名)+스;醱(正訓字)」(先行添記)] 등을 想定할 수 있으며 「保理(호리)」는 ①「ホル欲る(四段)」와 ②「ホル掘る(四段)」등을 想定할 수 있으므로 「須須保理(스스호리)」라는 音假名는 다음의 네 가지 가능성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능성①[「스;醱(正訓字)+스;為(正訓字)」+「호리欲る(四段)」] 가능성②[「스;醱(正訓字)+스;為(正訓字)」+「호리掘る(四段)」] 가능성③[「스;醱(正訓字)+스;須(音假名)」(후행첨기)+「호리欲る(四段)」또는 「스;須(音假名)+스;醱(正訓字)」(선행첨기)+「호리欲る(四段)」] 가능성④[「스;醱(正訓字)+스;須(音假名)」(후행첨기)+「호리掘る(四段)」또는 「스;須(音假名)+스;醱(正訓字)」(선행첨기)+「호리掘る(四段)」] 등이다.

가능성1 「스;醱(正訓字)+스;為(正訓字)」+「호리 欲る(四段)」

가능성2 「스;醱(正訓字)+스;為(正訓字)」+「호리 掘る(四段)」

가능성3 「스;醱(正訓字)+스;須(音假名)」(후행첨기)+「호리 欲る(四段)」

「스;須(音假名)+스;醱(正訓字)」(선행첨기)+「호리 欲る(四段)」

가능성4 「스;醜(正訓字)+스;須(音假名)」(후행첨기)+「ホリ 掘る(四段)」

「스;須(音假名)+스;醜(正訓字)」(선행첨기)+「ホリ 掘る(四段)」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須須許理(스스кори)」를 고찰해 본다면 다음의 두가지 가능성으로 정돈된다.

가능성1 「스;醜(正訓字)+스;為(正訓字)」+「コリ る(四段)」

가능성2 「스;醜(正訓字)+스;須(音假名)」(후행첨기)+「コリ 欲る(四段)」

「스;須(音假名)+스;醜(正訓字)」(선행첨기)+「コリ 欲る(四段)」

이상에서의 「須須保理(스스호리)」 「須須許理(스스кор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한일양국의 표기체계의 유사성(添記表記)과 「스스кори」의 한반도와의 관련성(특히 乙類假名の 사용) 『古事記』 등의 문헌기록 등은 고대일본의 차자표기가 한반도 삼국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3 수에가마(須惠窯;すえかま)의 이표기와 어원

가야(加耶)의 「노보리가마(登窯;のぼりかま)」가 5세기경에 일본에 전수되면서 그 이전까지의 일본의 채래식 토기(土器)인 「하지키(土師器)」와는 달리,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에키(須惠器)」를 만들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수에쓰꾸리베(陶部)」란 기관까지 설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수에키(須惠器)」를 제작한 기술진들은 거의 모두가 가야계도래인들 뿐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한 기술상의 용어도 자연스럽게 가야어를 그대로 일본에 가져다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에키(須惠器)」를 굽는 「스에가마(須惠窯)」의 「가마(窯)」는 가야어의 차용(借用)이기 때문이다.¹⁶⁾ 「스에+가마」란 말에서 후행어인 「가마(窯)」가 가야어이라면 이에 선행어인 「스에(須惠)」란 말도 가야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에끼(須惠器)」란 고분(古墳)시대 후반(4~6C)부터 나라(奈良)時代に 걸쳐 성행한 토기(陶器)로 「하지키(土師器)」에 대비된 명칭으로서 양자간의 특징에서 오는 차이에서 이름 붙여진 것 같다. 「하지키」가 고량토(高粱土)를 가지고 그릇의 형체를 만들어서 햇볕에 그대로 말리거나 저온에서 구운 「스야끼(素焼き)」로서 부서지기 쉬운 연질토기(軟質土器)로 운기가 없

16) 한자자음 「窯」는 한국어는 「가마(窯)」로 일본어는 「かま(kama)」로 동일한 발음으로 수용되었다.

고 표면이 거칠고 회색 빛깔이 나는 특징을 가진 토기(土器)인데 반해서 「스에키」는 고랑토를 「ろくろ台(回転円盤台)」 위에 올려서 토기형체를 만들어 거기에 「우와구스리(釉薬)」을 바르고 1000도 이상의 고온의 「노보리가마(登窯)」 속에 넣어서 구웠기 때문에 연질토기와는 달리 경질토기로서 「쇠(鐵)」처럼 탄탄하고, 그것을 두드리면 쇠소리(鐵聲)가 나며, 빛깔이 쇠처럼 흑갈색이 나는 특징을 가진 토기이기 때문에 「쇠(鐵)」에 비유해서 당시 가야어인 [sue;鐵]로부터 이름 붙여진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수사법의 관점에서 보면 「스에끼(須惠+器;すえ+き)」의 [sue]는 [ki(器)]의 수식어로서 보조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라면 수식을 받는 [ki(器)]는 원개념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릇(器)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器)이나 하면, 「쇠(鐵)처럼 탄탄하고 그것은 두드리면 쇠(鐵)소리가 나며 쇠(鐵)처럼 흑갈색이 나는 그런 그릇」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sue(鐵)]란 말의 어원은 현대어의 1음절어 「쇠(鐵)」에 대한 가야어는 2음절어인 [sue(鐵)]을 재구(再構)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12초의 『계림유사(鷄林類事)』¹⁷⁾와 15초의 『조선관역어(朝鮮館訳語)』¹⁸⁾에서 현대어 [쇠(鐵)]를 우리옛말에서는 [sue(鐵)]로 읽은 문증(文証)이 있기 때문이다. 『계림유사』에서는 「鐵曰歲」라고 했는데, 히로야마히사오(平山久雄)는 <皇極經世声音図>의 음을 근거로 하여 「歲」의 12C 송대음을 [siue]로 추정했고¹⁹⁾ 또 『조선관역어』에서는 「鐵曰遂」라고 했는데, 陸韋志는 <韻略易通>의 음을 근거로 「遂」의 15C의 중국북방음에서는 「遂」를 [suei]로 추정했다.²⁰⁾ 그 후 16C초로 내려오면서 『훈몽자회(訓蒙字會)』²¹⁾에서 보면 최세진(崔世珍)은 「鐵」을 [쇠;sφ]로 읽어서 현실한자음에 그대로 일치한다.²²⁾ 일본지명표기에서는 「쇠(鐵)」을 나타내는 5세기 당시의 한자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지명표기에서 현재 지명까지 잔존 반영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7) 12世紀初 宋나라의 孫穆이 당시 高麗語 360個를 漢字를 가지고 그 音을 表写해 놓은 책. 가령, 二曰途勃(두블)

18) 15世紀初 中国人이 編纂한 華夷訳語13編 중의 하나인데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 당시 우리말을 中國式 漢字音으로 表写해 놓은 책. 가령, 耳曰貴(귀)

19) 鷄林類事에서 「歲」字의 音価는 [siuei]로 推定했다.

[siuei] ← s(声母)+iuei(韻母) = i(韻頭)+u(韻腹)+ei(韻尾)

20) 朝鮮館訳語에서 「遂」字의 音価는 [suei]로 推定했다.

[suei] ← s(声母)+uei(韻母) = u(韻腹)+ei(韻尾)

21) 16世紀初(1517AD) 崔世珍이 漢字學習을 위해 譯어낸 책인데, 漢字 3360자의 당시 「訓」과 「音」을 기록한 것으로 16世紀 古語研究와 現實漢字音 研究에 있어서 귀중한 資料

22) 전계서 中卷31 가령, 鐵; 「訓」은 「쇠」, 「音」은 「털」

- ①陶(すえ); <岐阜県 瑞浪市>, <岡山県 倉敷市>, <山口県 山口市>, <香川県 綾南郡>
- ②末(すえ); <石川県 金沢市>, <福井県 福井市>, <兵庫県 三田市>, <大分県 宇佐市>
- ③末江(すえ); <福岡県 京都郡>
- ④管江(すえ); <滋賀県 坂田郡>
- ⑤須恵(すえ); <福岡県宗像市>, <岡山県 邑久郡>, <山口県 小野田市>, <滋賀県 蒲生郡>
- ⑥須衛(すえ); <岐阜県 各務原市>
- ⑦須依(すえ); <愛知県 海部郡>
- ⑧洲衛(すえ); <石川県 輪島市>
- ⑨須江(すえ); <宮崎県 桃生郡>, <崎玉県 比企郡>, <和山県 西牟婁郡>, <高知県 香美郡>

위의 지명표기 예①에서는 [すえ]란 표기에 한자의 원의대로 읽은 정훈자(正訓字)로 표기한 경우, ②에서는 [すえ]란 표기에 한자의 훈(訓)을 가차(假借)한 군가나(訓假名)로 표기한 경우 ③에서는 [すえ]란 표기에 군가나 [すえ(末)]자에 다시 「소나에가끼具書(江;え)」자가 중복표기된 예이고 ④에서는 [すえ]란 표기에 군가나(訓假名)[す(管)]+군가나(訓假名)[え(江)]의 구조 ⑤는 온가나(音假名)[す(須)]+音假名 [え(恵)]의 구조로 ⑥는 온가나(音假名) [す(須)]+音假名[え(衛)]의 구조 ⑦는 온가나(音假名)[す(須)]+온가나(音假名)[え(依)]의 구조 ⑧은 온가나(音假名)[す(洲)]+온가나(音假名)[え(衛)]의 구조 ⑨도 온가나(音假名)[す(須)]+온가나(音假名)[え(江)]의 구조로 각각 [すえ]란 지명을 표기한 것이다. 수에가마須恵窯(すえかま)가 설치되어있는 마을(村落)을 「수에무라すえむら(須恵村/末村/陶村)」라 칭하고 [すえ(器)]를 생산하는 고장이란 의미도 있다.

2.4 한국문화 관련의 일본지명

2.4.1 세부리(背振)·이후쿠(伊福)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 규슈(九州)지방으로 건너가는 최단코스는 쓰시마(対馬)→이키(壱岐)→요미코(呼子)→마쓰우라(松浦半島)를 거쳐 치쿠젠마에바루(筑前前原)로 상륙하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다. 사가현(佐賀県)과 후쿠오카현(福岡県)의 경계에는 「세부리(背振)山地」가 있고 사가현(佐賀県)가까이는 「세부리(背振)村」이란 지명도 보인다. 이와같이 「세부리(背振)」란 지명은 고대의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도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세부리(背振)」로

명명된 듯하다. 「背(セ)+振(ブリ)」은 두 단어로서 선행어인 「背(セ)」는 우리말의 「쇠(鐵)」의 뜻이고, 후행어인 「振(ブリ)」이란 「村落」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세부리(背振)」란 「산철(産鉄)의 마을」이란 뜻이다. 다음 「이후쿠(伊福)」란 지명은 「이토구니(伊都国/伊怡国/絲島(いとしま)」와 「다카소(高祖)神社」의 근처에 위치했다. 청동의 제작자 중의 중심적인 씨족집단도 「이후쿠(伊福)」인데, 「伊(い)」는 「伊都国(いとこく)」의 「伊(イ)」와 똑같은 발화사(發語辭)에 불과한 허사(虛辭)에 속하며 그 중심적 어원은 「福(ふく)」에 있다. 「ふく(福)」이란 것은 가령, 「真金を吹く, 鉄を吹く, 金を吹く」처럼 소위 「精鍊한다」는 것을 表現한 말이다. 따라서 「伊都国(いとこく)」 그곳에 「伊福村(いふくむら)」이 있었다는 것은 「鉄의 精鍊者들이 그곳에 거주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平凡社の <佐賀県の地名>에 의하면 「세부리무라(背振村)」에서 철광석이나 쇠(鐵)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무래도 「이후쿠무라(伊福村)」란 「伊福」과 관계가 있는 듯한 기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리(背振)山地」속에 「伊福」란 지명이 있어서, 고대의 제철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또 하나의 방증자료로 「原」자의 「訓」을 「ばる」로 읽고 있는 지역이 있다. 혼슈(本州)지방에서는 「原」의 「訓」을 「はら/ばら」로 읽는 것과 달리, 규슈(九州)지역에서는 「ばる」로 읽고 있는 경우다. 가령, 옛날 伊都国의 고지명이 현재 지명에서도 여전히 「마이바루쵸(前原町)」로 읽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오쿠노마사오(奥野正男)」는 그 어원이 한어의 「ブル(草原)」에서 왔다고 했다. 「세부리(背振)」에서도 「背(セ)+振(ブリ)」의 두 단어로 본 것이다. 「バル(原)」란 것은 히젠(肥前)지역의 「中原(なかばる)」를 비롯하여, 규슈 전체지방에서도 여기저기 상당히 지명 예가 많다. 또 「쓰시마(対馬)」에서도 「開墾한다」는 것을 「バリする」라 표현하고 「오끼나와(沖繩)」까지도 「バリする」는 통용되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今宿にある高祖神社附近の朝鮮文化遺蹟について>란 논문에서 韓鍛冶 「卓素(たくそ)」의 「素(そ)」와도 관련해서 이 [so]가 「쇠(鐵)」의 산지임을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日本の中の朝鮮文化24号>에서는 「takukoso→takaso/takoso」의 지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正倉院文書」에서 大宝2年(702AD)에 筑前国 島郡 川邊里(ちくぜんこくしまぐんかわべ)의 戶籍断簡이 발견되었는데 그 속에서 島郡(しまぐん)의 大領인 「肥君(ひのくに)」의 「이데(猪手;いで)」의 가족 중에서 「다쿠소키시(宅蘇吉志)」의 성명이 보인다. 여기서 肥国(ひのくに;佐賀県)의 군주인 「이데(猪手;い

で)」는 「이토데(五十迹手;いとで)」의 이름과 대조된다고 했다. 상기한 「다쿠소키시(宅蘇吉志;たくそきし)」의 「다쿠소(宅蘇たくそ)」는 지명이 아니라 씨족의 이름이며, 「키시(吉志;きし)」란 도래인에게 붙는 관직이니까 「다쿠소키시(宅蘇吉志)」는 「히노쿠니(肥国;ひのくに;現在佐賀県)」의 군주인 「이데(猪手;いで)」의 가족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한반도로부터 온 도래인이 아닐까 추정했다. 또 그는 「고지끼(古事記)」의 오진텐노(応神天皇) 조(条)에서 백제의 照古王(근초고왕)이 「가라단야(韓鍛治;加羅国대장장이)」인 「다쿠소(卓素;たくそ)」를 왜(倭)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宅素(たくそ)」는 여기나오는 「卓素(たくそ)」와 동일한 인물로 가야국의 대장장이 이름으로 본 것이다. 구체적 설명을 해보면 「卓蘇(たくそ)」를, 「タク+ソ」로 분석하여 「ソ(素)」는 우리말인 「쇠(鉄)」의 뜻이고, 「タク(卓)」는 昔脱解의 어머니가 거주하던 지방인 「託村(たくそん)」으로 추정한 것이다. 즉 石脱解의 어머니의 출신촌락인 「託社(たくこそ)」의 「託(たく)」란 지명도 역시 「鍛治(단야; 대장장이)」와 관계가 있는 지명으로 여겨진다. 다시말해서 [そ]는 「쇠(鉄)」의 뜻이고, 「託村(たくそん)」에서 手人인 「韓鍛治(から단야; 加羅国대장장이)」가 현해탄을 건너온 「宅蘇/卓素吉志(たくそきし)」가 島郡의 大領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토쿠니(伊都国)의 이토성(怡土城)에는 고대 조선식 산성적(山城跡)이 있고, 그 경내에는 「다카소(高祖)神社」가 있는데, 이 神社는 伊都県主가 살았다는 「가라노고오(韓良郷;からのごう)」이란 지명이 보이며, 여기에는 가야국 사람들이 벼농사짓기 좋은 조건을 찾아서 반수이상이 이곳으로 이주해 온 곳이기도 하다. 또 이 진자(神社)는 소위 가야왕자인 「아메노히보코(天日槍)」의 처(妻)인 「가라단야(伽倻鍛治)」의 무녀(巫女) 「赤留比売神(あかるひめのかみ)」을 제신(祭神)으로 모시는 진자(神社)이기도 하며, 또 이 진자의 이름으로 「다카소키시(宅蘇吉志)」의 씨명(氏名)인 「다카소(高祖)」를 가져온 것이다. 즉 「다카소[高祖(たかそ)/高磯(たかそ)/卓素(たくそ)/宅蘇(たくそ)/託社(たくこそ)]」등으로 미루어 보아 가야국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였음을 엿 볼 수 있다고 한다.

2.4.2 「고오리모토(郡元)」町

「郡(こおり)+元(もと)」로 분석해 보면 후행부의 「元(もと)」는 일본고유어이지만 선행부인 「郡(こおり)」은 우리말의 차용어(借用語)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본의 고유어에서는 [kori]이란 「훈(訓)」이 없지만 우리말의 고유어 「kor(골);

郡」은 현재까지도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 1음절어인 [kor]이 일본어로 차용화되는 과정에서 개음절화하여 2음절어로 된 것이다. 즉 「kor+i(母音)→ko+ri;(郡)」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郡+元+町」의 의미는 「시내에서의 으뜸이 되는 중심적 고장(마을)」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東雅에 의하면 孝德2年(646AD)의 文化改新때 「郡」의 경계에 대한 규정이 수입되었는데 이 때 한반도에서 사용되었던 지계명의 단위인 「郡」이 일본에 수입되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県○○郡」처럼 흔히 「郡(グン)」은 行政区劃의 「地界單位」의 접미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본래의 지계접미사의 기능을 상실해서 단순한 보통명사로 바뀐 것으로 환언하면 상술한 「郡元(こおりもと)」의 경우는 「시내있는 마을(町)중에서 으뜸이 되는 중심부에 위치한 고장(마을)」이란 의미가 있다.

2.4.3 「무라사키바루(紫原)」 町

「紫+原+町」로 분석해 보면 선행어인 「무라사키(紫)」는 일본고유어이고 후행어 「原(baru)」만이 우리말로 [baru(草原)]로 읽는다. 일본상대문헌 자료에서도 「原」字의 「訓」은 「はら/ばら/わら」등으로 훈독(訓讀)하지만 [baru]로는 결코 읽지 않았다. 그러면 이 「baru(原)」란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말인지 의문이 생긴다. 이 「紫(むらさき)+原(ばる)」에서 선행어인 「紫(むらさき)」는 일본어이지만 후행어인 [baru]는 한반도로부터 들어온 차용어로 보인다. 현재에서도 우리말에서 「草原」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접미사 「~벌(bær;草原)」이 고유명사 뒤에 접미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가령 「黃山+벌(bær;草原)」에서의 1음절어의 접미사 「~벌(bær)」이 일본어로 차용되는 과정에서 2음절구조로 개음절화하여 「bær+u(母音)→bæ+ru」로 바뀐다. 즉 우리말 「bær(草原)」의 모음[æ]는 일본어의 모음체계 속에는 없으니까 일본어의 모음[a]로 대체해서 「bæ→ba」로 바뀌고 한어의 발음 [r]는 일본어의 모음[u]를 붙여 개음절화한 것이 [ru]가 되어서 우리말 「bær(草原)」이 일본어 [baru]로 차용된 것이다. 백제와 신라의 격전지였던 「黃山+bær(草原)」이란 지명이 있다. 선행어인 「黃山」은 고유명사이고, 여기에 초원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 「bær(草原)」이 첨기(添記)된 지명예다. 이 「紫(むらさき)+ばる(草原)」에서 선행어 「紫(むらさき)」는 일본고유어이고 여기에 후행어인 「原(ばる)」은 우리말로 「초목이 싱싱한 보랏빛 색깔의 들판」이란 의미를 나타낸 지명이다.

2.4.4 이브스키(指宿/揖宿)

가고시마시(鹿児島市)로부터 시외로 3km쯤 떨어진 온천도시로 「指宿市」가 있다. 현재 「指宿」을 [いぶすき]로 읽는지 토속주민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그 해답을 「和名類聚鈔(わみょうるいしゅうしょう)」의 고지명인 「揖宿郡(いぶすきぐん)」이란 표기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고지명속에 「揖宿(いぶすき)」이란 표기는 현재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이부스끼군揖宿郡(いぶすきぐん)에 살아 남아 있다. 「揖(いぶ)+宿(すき)」에서 선행부 「揖」자의 일본식 한자음은 입성운미 「p」가 당시 이미 일본한자음에서 [ㄱ우] 또는 [시우]로 탈락되었으므로 「揖(ibu)」의 입성중성음 p음이 남아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한자음에서만 그 발음이 남아 있다. 또 「揖(ibu)+宿(suki)」의 후행부 「宿(스키)」도 일본식 한자음(吳音/漢音)에서는 [shuku]이므로 「운복(韻腹)+운미(韻尾)」가 [suki]로 읽혀지지 않는다. 오직 우리 한자음에서만 [suki]로 읽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ibu(揖)+suki(宿)」란 발음은 우리 한자음에 더 가깝다고 본다. 도도야키야스(藤堂明保)의 『한자어원사전(漢字語源辞典)』²³⁾에 의하면 「揖」의 일본 상고한자음은 [dziəp]이어서 본래는 고대 입성운미의 [p]를 가지고 있었다. 또 모로바시데쓰지(諸橋轍次)의 『한화대사전(漢和大辞典)』²⁴⁾에 의하면 「揖」은 [イフ→ㄱ우]로 그 변천이 설명되어 있어서 일본의 한자음은 상고, 중고한자음에서 그 입성운미 [p]를 이미 상실한 단계의 음인 [ㄱ우/시우]가 일본한자음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입성운미[p]의 변천단계에서 본다면 「ibu(揖)+suki(宿)」은 폐음절어인 한국어의 「ib(揖)」의 입성운미[p]가 일본어화(개음절화)한 [ip+u(母音)→ibu]의 단계의 어형이 「揖宿(ibusuki)」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읍(揖)」자에서 우리 모음 「으」가 일본어모음에는 없기 때문에 「イ」로 대체되고 또 우리 한자음에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입성운미 [p]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ibu(揖)+suki(宿)]의 후반부인 「suki(宿)」도 우리 한자음의 [suk(宿)]이 일본어로 개음절화하면서 [suk(宿)+i(母音)→su+ki]로 발음이 바뀐 것이다 따라서 「揖宿」을 [ibusuki]로 읽은 것은 우리 한자음의 입성운미[p]가 반영된 것으로 이 지명은 한국계 도래인에 의해 작명된 것으로 보인다.

23) 藤堂明保(1980) 『漢字語源辞典』学灯社, p.176

24) 諸橋轍次(1957) 『漢和大辞典』卷五 大修館書店, p.78

2.4.5 가라구니타케(韓国岳;からくにたけ)

가고시마(鹿児島)와 미야사키(宮崎)의 현계(県界)에는 韓国岳(からくにたけ)가 있다. 그런데 『日本漢和大辞典』을 보면 「唐」자의 훈(訓)은 [kara]라고 읽지만 「韓」자의 훈(訓)은 일본어에는 없다. 그러면 「韓」자를 [kara]로 읽은 근거는 어디서 온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이것도 우리말의 차용(借用)으로 보인다. 이 [kara(韓)]란 것은 서력전(西曆前)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변한국(弁韓国)」을 가리킨 말로 이 「변한(弁韓)」의 전신인 「가야변한국(加羅弁韓国)」을 현지에서는 「加洛韓(karahhan)」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kara]를 「韓(kara)」 또는 「加羅(kara)」로 표기해 온 듯하다. 우리측의 사서(史書)에 의하면 변한에 대한 호칭에서도 [kara]계 혹은 [kaya]계의 이중표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모두 일본의 지명예에서도 현재까지 반영되어 있다. 히라노구니오(平野邦雄)의 『日本古代氏族人名辞典』²⁵⁾에 의하면 「韓国(からくに)/韓人(からびと)/韓海部(からあまべ)/加羅(から)/賀羅(から)」 등은 조선반도로부터 건너온 도래인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라구니타케(韓国岳)는 가야계 도래인들이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모국산천의 이름인 「加良岳(Karaak);靑州 現在 晋州」이란 지명을 이곳으로 옮겨와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삼국시대의 국호인 「신라(新羅)」는 일본상대문헌에 「しらぎ(しらぎ)[shiragi(shirki)]」로 표기되었는데 마지막 음절의 [gi/ki]는 상대차자표기의 특징인 「조다이가나쓰가이(上代仮名使い)」의 을류가명(乙類仮名)표기로 도래계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일본상대 고문헌에 김치를 의미하는 「須須保理(ススホリ)/須須許理(ススコリ)」는 한자차용표기의 기준에서 분석한다면 가능성1 「스;酢(正訓字)스;為(正訓字)ホリ欲る(四段)」과 가능성2 「스;酢(正訓字)스;為(正訓字)ホリ掘る(四段)」와 가능성3 「스;酢(正訓字)스;須(音仮名)ホリ欲る(四段)」 / 「스;須(音仮名)스;酢(正訓字)「ホリ欲る(四段)」와 가능성4 「스;酢(正訓字)스;須(音仮名)ホリ掘る(四段)」 / 「스;須(音仮名)스;酢(正訓字)ホリ掘る(四段)」 등으로 분석된다. 「스에끼;

25) 平野邦雄(1990) 『日本古代氏族人名辞典』 吉川弘文館, p.202

須惠(すえ)器(き)」의 [sue]는 가야어인 「쇠(鐵)」가 2음절어 [sue(鐵)]로 수용된 것으로 「쇠(鐵)처럼 탄탄하고 쇠(鐵)소리가 나며 흑갈색의 그릇」이란 의미이다. 「세부리(背振)」는 「背(セ)振(ブリ)」로 선행어인 「背(セ)」는 우리말의 「쇠(鐵)」의 뜻이고 후행어인 「振(ブリ)」이란 「村落」의 의미로 「세부리(背振)」란 「산철(産鉄)마을」이란 뜻이다. 「고오리모토(郡元)」의 「모토(元)」는 일본 훈이고 「고오리(郡)」는 우리말 1음절어인 「kor(골);郡」가 일본어로 차용화되는 과정에서 개음절화하여 2음절어화한 것이다. 즉 「kor+i(母音)→ko+ri;(郡)」로 바뀐 것이다. 「무라사키바루(紫原)」의 「바루(原)」는 일본상대문헌에서 「はら/ばら/わら」등으로 훈독(訓讀)하지만 [baru]로는 결코 읽지 않았다. 이는 한국어의 차용으로 「黃山+벌(bær;草原)」에서 1음절어의 접미사 「~벌(bær)」이 일본어로 차용되는 과정에서 2음절로 개음절화하여 「bær+u(母音)→bæ+ru」로 된 것이다. 「이브스키(揖宿);ibu(揖)+suki(宿)」의 「읍(揖)」는 일본어모음에는 없는 「으」가 「イ」로 대체되고 「숙(宿)」도 우리 한자음의 [suk(宿)]이 일본어로 개음절화하면서 [suk(宿)+i(母音)→su+ki]로 발음이 바뀐 것이다. 「韓國岳(カラクニタケ)」의 「韓(カラ)」는 당시 「변한(弁韓)」의 전신인 「가야변한국(加羅弁韓國)」을 현지에서는 「加洛韓(karahan)」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kara]를 「韓(kara)」또는 「加羅(kara)」로 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南豊鉉(2009) 『古代韓国語研究』 시간의 물레, pp.287-288.
 _____(1981) 『借字表記法の研究』 檀大出版部, pp.164-180.
 朴炳采(1990) 『古代国語学研究』 高大民族文化研究所, pp.14-46.
 李炳銑(1996) 『日本古代地名研究』 亜細亜文化社, pp.34-56.
 _____(1982) 『韓国古代国名地名研究』 亜細亜文化史, pp.35-67.
 이지수(2015) 「<伊予道後湯湯碑文>에 관한 一考」 『日本言語文化』 韓国日本言語文化学会, pp.209-228.
 _____(2015) 「須須保理(ススホリ)菫에 관한 一考」 『일본연구』 64호, 한국외국어대학교일본연구소, pp.399-422.
 _____(2014) 「正倉院万葉仮名文書(甲)에 관한 一考」 『일본어학연구』 제41집, 한국일본어학회, pp. 131-148.
 _____(2012) 「<上宮記逸文>에 관한 一考」 『일어일문학연구』 제83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 407-427.
 _____(2006) 「万葉集에 나타난 漢字借字表記의 특수한 운용-正訓字의 독법지시를 중심으로-」 『日本語学研究』 제15집, 한국일본어학회, pp.154-159.
 _____(2005) 「新羅의 異表記와 그 地名語源에 대하여」 日本文化研究, 동아시아일본학회, pp.205-221.
 _____(2005) 「韓日 양국의 上代漢字借用表記의 受容과 定着」 인문과학연구, 제9집, 인문과학연구소, pp.105-127.

- 洪元卓(1994) 『百濟와 大和日本の 起源』 구다라인터내셔널, pp.1-25.
홍윤기(2008) 『일본 속의 백제 구다라』 한누리미디어, pp.94-150.
- 江湖山恒明(1978) 『上代特殊仮名遣研究史』 明治書院, pp.23-33.
上田正昭(2013) 『渡來古代史』 角川選書, p.526.
大国未津子(1997) 『韓日の文化交流』 サイマル出版会, pp.45-49.
金沢庄三郎(1985) 『日韓古地名の研究』 草風館, pp.17-19.
龜井孝(1977) 『日本語の歴史2(文字とのめぐりあい)』 平凡社, pp.55-357.
佐伯有清(1994) 『日本古代氏族事典』 雄山閣, pp.1-546.
佐藤喜代治編(1989) 『漢字と仮名』 漢字講座4 明治書院, pp.225-255.
築島裕(1981) 『仮名』 日本語世界5 中央公論社, pp.55-59.
鶴久(1977) 『岩波講座 日本語 8 文字』 岩波書店, pp.244-245.
_____(1995) 『万葉集訓法研究』 桜風社, pp.583-613.
白藤礼幸(1987) 『奈良時代国語』 国語学叢書 2, 東京堂出版, pp.68-89.
橋本四郎(1987) 『橋本四郎論文集』 国語学編, 角川書店, pp.22-42.
平野邦雄(1990) 『日本古代氏族人名辞典』 吉川弘文館, p.202
本間 信治(1992) 『こっぼん地名紀行』 新人物往來社, pp.32-42.
正宗敦夫(1970) 『和名類聚抄』 風間書院, p.1231.
_____(1994) 『万葉集総索引(漢字編)』 平凡社, p.21. p.8. p.185.
_____(1994) 『万葉集総索引(単語編)』 平凡社, pp.562-572.

논문 투고 일자 : 2018. 01. 10.
논문 심사 일자 : 2018.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2. 05.

<要旨>

日本に伝わった韓国の文化
—比較言語学的な研究を中心に—

李知洙

日本最古の歴史書である『日本書紀』には、当時の韓半島の三国と関連したたくさんの記事が遺されている。その中でも特に百済関連記事を見ると、当時の日本が韓半島の三国と密接な文化交流関係にあり、文化的に韓半島からの影響が大きかったことがわかる。7世紀前半の日本文化は「飛鳥文化」と言われるが、その中で百済系渡来人は、仏教文化、寺院建築様式、瓦制作技術、絵画制作技術、音楽や踊りなど、様々な分野において相当な役割を果たしていた。また、当時の韓日両国には文字というものがなく、中国文字である漢字を借用し表記する「漢字借用表記」という最も基礎的な方法が使われていた。この借字表記の最も発達した形が、韓国の場合は「郷歌」の表記に使われた「郷札」であり、日本の場合は『万葉集』に使われた「万葉仮名」である。筆者は、長年にわたって、比較言語学的な立場から韓国と日本の漢字借用表記について研究してきた。本稿では、今までの研究成果の中から文化と直接関係のある「新羅(シラキ)」という国名と、「キムチ:須須保理(ススホリ)」に関する二つの論文を簡単にまとめて紹介し、「須惠窠(スエカマ)」と「背振(セブリ) / 伊福(イフク) / 郡元(コオリモト) 町 / 紫原(ムラサキバル) 町 / 韓国岳(カラクニタケ)」などの地名に関する短編的な研究成果をまとめ、韓日両国の文化的な関連性について考察したい。

Korean cultures Instructed to Japan
—Concentrating on Study of Comparative Linguistics—

Lee, Ji-Soo

There are many descriptions related to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in 『Nihon Shoki』, one of Japanese oldest history books. In particular descriptions related to the Baekje Kingdom prove that Japan had a close cultural relationship with the Three Kingdom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as largely influenced by Three Kingdoms for cultures at the time. The Japanese culture at the early 7th century is named 「Asuka Culture」, which was influenced by the Baekje Kingdom for widespread areas from Buddhist, temples, tiles, paintings and music to dance. In addition both Korea and Japan did not have their own language and adopted Chinese for a writing system as the primary stage. The most advanced stages of the writing system refer to 「Hyangchal」 transcribing 「Hyangga」 in Korean and 「Manyogana」, a form of 『Manyoshu』. I have studied the Korean and Japanese writing systems to adopt Chinese for many years. This study introduced two theses for 「the national name of Shilla」 and 「Kimchi;Susubori」 directly related to cultural results of existing researches and summarized fragmentary researches for place names such as 「Suegama」 and 「Seburi/Ihuku/Koorimoto/Murasakibaru/Karagunitake」 in order to analyze a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